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0:13~15)



#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세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현세에 매달려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현세에 집착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으면 다 끝날까요? 그렇다면 안 믿는 자들이 왜 제사를 지낼까요? 죽은 자들을 위해 왜 제사상을 차리는 걸까요? 끝났는데요.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육체는 때가 되면 흠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가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심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20:11~15).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육체가 죽은 첫째 사망에 이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역만리에 있는 자식을 꿈속에서 만나지요?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육은 영을 담은 그릇일 뿐, 진정한 나는 바로 영입니다. 과일의 육즙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체를 벗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동해 건너에 일본이 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태평양을 건너면 미국이 있다고 누

가 믿었습니까? 계란 속의 병아리더러 계란 껍질이 깨지면 다른 세상이 있다고 아무리 말한들 어떤 병아리가 믿겠습니까? 울챙이가 개구리가 될지 누가 알았으며, 반대기가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기한이 차니까 병아리가 나오고, 기한이 차니까 개구리가 되고, 기한이 차니까 나방이 되고, 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한이 차면 죽을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동화책에 나오는 동화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보았 습니다. 제가 본 지옥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도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렇게 극한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9:47~49). 눈을 빼는 고통보다, 손을 자르는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 가게 눈이, 손이 범죄하걸랑 눈을 빼고, 네 손을 찍어버리고 지옥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마8:12), ‘꺼지지 않는 불못’(마2:41),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막9:49), ‘영원한 멸망의 곳’(살후1:9)이 지옥입니다.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에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지요? 그걸 막 문지르고, 물을 부었다가 다시 소금을 치고 막 문지르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올려놓는데, 미꾸라지는 죽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이런 고통이 계속됩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빌어먹을 지라도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죽은 부자도 자기 가족들은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반면, 천국은 인간의 표현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형용할 수 없이 좋고 멋진 곳입니다. 천국에는 눈물이나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사망, 질병(계21:4), 저주가 없습니다(계22:3). 그리고 천국에서는 장가나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마22:30). 항상 열매를 내는 과실수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보석으로 지은 집 등,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부족한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기에 ‘예수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후진하고 있는 차 뒤에서 놀고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소경도, 그 아이도 구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사43:8).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15~20).

이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며, 아울러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믿질 않으니 표적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이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11:4~5)고 하셨습니다.

제가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려고 세계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각색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렇게 사실이니, 예수만이 길이라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천국을 가려는가 지옥을 가려는가

여러분, 명절 때 고향에 가려는 사람은 표를 미리 예매해 놓습니다.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빌3:20). 천국 가는 표도 미리 예매해 놓아야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표가 발행됩니다. 그 표 없이는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예수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빛과 소금과 조금 다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빛과 소금을 원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인정받는 인격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가정의 빛과 소금이고, 우리 직장이나 교회, 사회의 빛과 소금이길 원하신다. 송두리째 바뀐 우리의 모습,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판사람이 된 모습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다.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 그랬던 것처럼,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사람이 된 것 말이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뀌고, 세상에서 꿈꾸던 모든 명예, 지식, 물질의 가치관 자체가 통째로 바뀐 인생, 어둠에서 빛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로 사는 완전히 뒤바뀐 새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

남을 들이박던 염소가 예수 믿고 착해지고 순해진 염소 말고, 속내장을 전부 양의 내장으로 바꾸어 겉모습은 그대로 염소의 모양이나 실체는 통째로 양으로 바뀐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늘의 달과 별들이 쉬지 않고 태양 빛을 받아 세상의 밤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꾸준히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면 된다. 달과 별들이 태양의 빛이 차단되는 순간 빛이 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할 일은 좀 더 나은 윤리, 도덕,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머물러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착한 행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셨듯,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가정이나 학교, 직장, 나아가 국가의 빛이 되길 바라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3~16).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빛과 소금 ::

#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작년 한 해 동안 러닝을 꾸준히 하며 마라톤에도 참가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올해에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보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면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되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다시 뛰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몸도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주방에 걸여놓은 교회 달력 속 목사님의 잠언이 눈에 들어왔다.

“포기는 자살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3, 4월 두 달 동안 그 잠언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비록 달릴 수는 없었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찾아 집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문득 ‘다시 한번 천

천히 뛰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통증이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쉬지 않고 5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동안 아프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난날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시작하고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론 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꿈과 계획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기도해도 금방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될 때도 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조용히 견디는 그 시간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송지혜

# 영적 다이어트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제 영적 다이어트에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 우리 영이 지금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만, 신학과 교리로 메워져 하나님과의 교류에 장애가 되고 있다. 과도한 지방질로 인하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콜레스테롤은 만병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니 군데군데 콜레스테롤이 막는다. 그동안 배운 신학이 자꾸 가로막고, 논리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파고들다 보니 머리만 비대해지고 그러다 결국 동맥경화증에 걸려 영적 중풍병자가 되고 만다. 영적 마비가 온 것으로, 점차 하나님과의 절연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다이어트 하자. 과잉 비대를 초래하는

것들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해로운 것들을 먹지 말자. 기름지고 먹음직하여 혀끝을 유혹해도 절대 먹지 말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자. 우리는 생명(生靈)이 투여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다. 예수는 산 떡이요, 음료가 되신다고 하셨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고, 영이 살면 몸도 살아난다.

몸매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도가 꾸어 아름답게 하자.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복된 자녀가 되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

웅달샘 책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번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왔는데 지갑을 찾아도 도통 보이지 않더라고요. 신분증부터 각종 카드에 현금, 중요한 명함들도 잔뜩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불쑥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지갑은 돌아올 거야. 천사는 내 지갑을 찾을지어다!” 통성으로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갑 잃어버리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청계산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대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동작구에 삽니다”, “그런가요? 제 교회가 동작구에 있습니다!”(당시 중고등부 교사인지라 동작1교구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예수중심교회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 “할렐루야! 저 동작1교구 김영환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지갑을 청계산에서 잃어버렸는데, 놀랍게

도 그것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청계산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 아닙니까? 그 넓은 곳에서 제 지갑이 하필 우리 교회 장로님 눈에 딱 띈 것입니다. 말로 뿌린 대로 천사가 역사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젊은 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 당시 제 한 달 월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감동을 받아 제 유일한 목돈이었던 청약저축을 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차례나 드렸던 현금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다 ‘주거비’와 관련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입버릇처럼 뿌렸습니다. “난 집 걱정은 안 해. 내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훗날, 저는 이 말이 뿌린 약속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말 잘해야 복 받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무심코 뱉는 부정적인 말은 싹 잘라버리고, 오늘 내 삶을 향해 초긍정의 멋진 말들을 팍팍 뿌려봅시다. 우리가 뿌린 그대로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천명 전도사

:: 동행하는 삶 ::

:: 신앙에세이 ::

# 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말을 해도 대답만 할 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약속한 시간이 있어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늘 닥쳐서야 움직이는 모습 등 그런 일상들이 너무 못마땅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공부폰(전화와 문자만 되는)으로 바꾼다, 폰을 없앤다' 등의 협박을 해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 사춘기가 왔다. 남편에게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남편은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지금은 원래 그런 시기이고, 자기가 깨달아야 하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

많이 기다린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던 어느 날, 문득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만약에 내가 저 아이라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명령조로 말하는 엄마가 집에 있으니 오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 '일어나라, 씻어라, 빨리 가라, 숙제해라' 등등 군대같이 명령조로만 이야기하는 엄마가 있는 집을 누가 가고 싶을까.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늦지 않게 잘나가는 게 감사한 일이다, 학원 숙제를 다 해가는 게 어디냐, 성실한 거다, 칭찬해줘라' 등의 말을 했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와닿고, 또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라는 책을 쓴 서울대 나민에 교수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한다. 자식이 뭔지, 미운가 싫다가도 마음에 걸리고, '사랑만 주자' 싫다가도 또 짜증이 난다고.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것이었다. 서울대 교수도, 베스트셀러 작가도 사춘기 자녀 앞에서는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다. 사춘기 자녀는 잔소리에는 귀를 닫지만 존중 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을 연다고 한다. 실제로 해보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을

되새기며 아이를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아이에게 훈계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요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면, 신앙이 훨씬 견고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아이는 분명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것이다.

사춘기는 아이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인 것 같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급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신다. 오늘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정효경 집사

## 부모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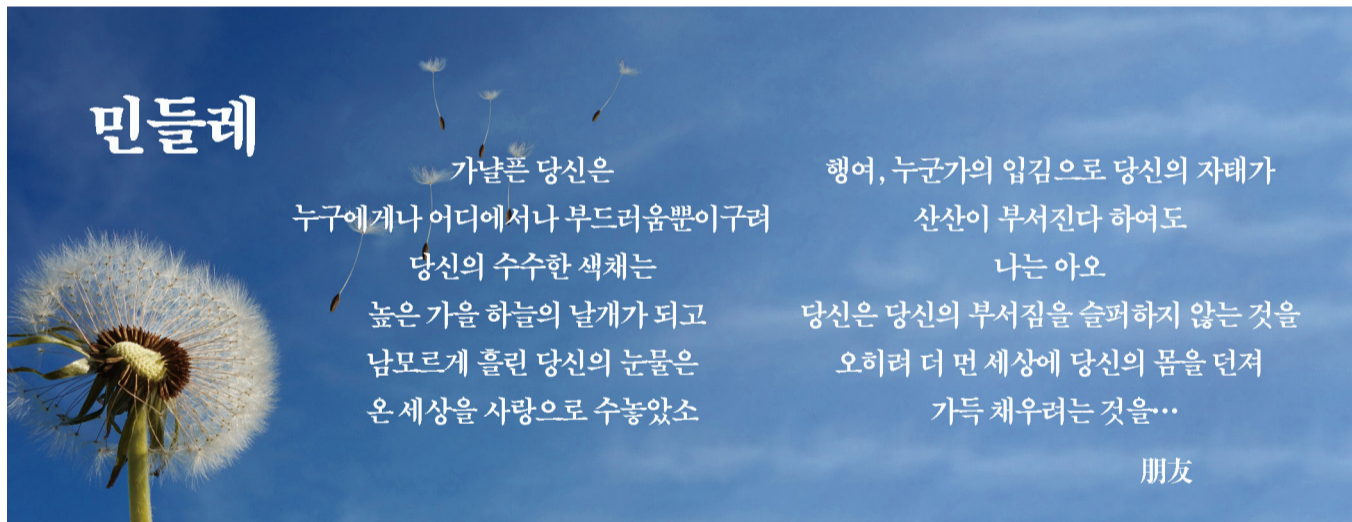
중학생인 첫째 아들은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늘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친구와 통화를 한다. 의도하지 않게 통화 소리를 엿듣게 되면, 늘 게임이나 축구가 주제였던 예전과 달리 요즘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느니, 누가 누구와 사귀다느니, 이성 친구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러던 어느 날, 요 녀석이 여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생각하다 문득 다른 아이가 내 아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좋았다. 물론 그 집 딸이 내 아이라 생각하면 또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딸을 안 주셨나. 이런 게 부모 마음인가 생각하다 보니, 문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떠오르며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다. 누가 내 아이를 좋아해 주면 내가 좋고, 내 아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군가 도와주고 돌봐주면 내가 참 고맙고, 내 두 아들이 형제끼리 서로 돕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흐뭇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물음에 답한 율법 교사의 말을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고, 그 율법 교사가 그럼 이웃이 누구냐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부모 마음같이 느껴졌다. 마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내 아이에게 네가 다가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하시는 애절한 사랑의 음성처럼 느껴졌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 마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마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으리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눅10:33~34).

박찬영 집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 믿음과 생각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 배웁니다. 하지만 제게 '믿음은 너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느껴지거나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런데 믿음이 곧 생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던 여자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여자의 생각이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경우 불신과 염려가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생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며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말

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라보니, 생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쉬운 생각을 할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생각 속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소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